

화창한 봄날씨·명품코스 질주... 기록도 눈부셨다



힘찬 출발 제53회 광주일보 3·1절기념 전국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4일 오전 8시30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2000여 마라토너들은 이날 일제에 맞서 만세운동으로 항거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3·1정신을 기리고 자유와 민주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광주의 도심을 질주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보건씨 풀코스 2시간 30분36초 우승... 10km·하프코스 이어 '트리플 크라운'

女 풀코스 1~3위 서브3 성공

■ 53회 입상자 기록

◆ 풀코스 남자

순위	배번호	이름	기록
1	155	김보건	02:30:35.95
2	145	권기혁	02:37:27.38
3	180	박창하	02:38:42.05

◆ 풀코스 여자

순위	배번호	이름	기록
1	824	이정숙	02:57:59.79
2	823	이선영	02:58:30.18
3	812	권순희	02:59:08.26

◆ 하프코스 남자

순위	배번호	이름	기록
1	1104	마성민	01:13:52.32
2	1276	이재식	01:14:18.33
3	1312	조우원	01:14:22.35

◆ 하프코스 여자

순위	배번호	이름	기록
1	8044	류승화	01:25:19.89
2	8075	황순옥	01:25:51.86
3	8058	이연숙	01:29:38.00

새봄을 알리는 달리기 열전이 광주 도심을 수놓았다.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이하 3·1 마라톤)가 4일 53번째 질주를 끝냈다. 3·1절 정신을 기리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출발선에 선 2000명의 참가자들은 광주 도심을 가로지른 뒤 영산강변을 달려 상무시민공원으로 끝냈다.

낮 최고 기온이 18도에 이를 정도로 완연한 봄 날씨 속에서 대회가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놀라운 기록들을 만들어냈다.

3·1 마라톤 10km, 하프코스 역대 우승자인 김보건(30·서울)씨가 풀코스 우승까지 이뤄내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지난해 풀코스에도 도전해 입상에 실패했던 그는, 이번에는 2시간30분35초라는 뛰어난 기록으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2위로 권기혁(2시간37분27초)씨를 한참 앞선 질주했다.

여자 풀코스의 우승 테이프는 이번에도 이정숙(53·천안)씨가 끊었다. 2016년 6초 차로 대회 6연패에 실패했던 그는 지난해 정상을 탈환한 뒤 이번에도 가장 빠른 2시간57분59초에 결승선을 통과해 대회 2연패이자, 8번째 우승을 이뤘다.

또 이씨에 이어 이선영, 권순희씨가 각



우승이다 제53회 광주일보 3·1절기념 전국마라톤대회 풀코스에 참가한 김보건씨가 2시간30분 36초에 끝인지점을 통과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각 2시간58분30초, 2시간59분08초에 풀코스를 완주하면서, 여자 풀코스 1~3위가 모두 서브3(3시간 안에 풀코스 완주)에 성공했다.

하프코스에서는 새 얼굴과 전통의 강자가 각각 우승자 타이틀을 가져갔다.

남자 하프코스에 출전한 '마라톤 4년차' 마성민(35·목포)씨는 1시간13분52초의 기록으로 3·1 마라톤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3·1 마라톤의 익숙한 얼굴 류승화(40·천안)씨는 느긋하게 마지막 지점을 통과하면서 지난 2016년 대회 3연패를 이뤘던 실력을 그대로 보여줬다.

참가자들의 기록은 물론 대회 분위기도 뜨거웠다. 주료가 잘 통제되면서 명품 도시 코스를 마음껏 달린 참가자들은 광주시민들의 응원까지 받으며 봄날 축제를 즐겼다.

하프코스에서 직접 출전한 양대동 광주시 육상연맹 상임부회장은 "지난해에는 광주전 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애를 먹었는데, 오늘은 바람도 없고 뛰는 데 불편함이 없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호남의 대표적인 대회답게 운영도 훌륭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마라톤 대선배들 누렸던 도심 코스서 수준 높은 명품 대회”

관전평 심판 총괄 맡은 심재용 대한육상연맹 부회장

“따뜻한 날씨 속의 명품 주행코스가 전국의 마라토너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제5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심판 총괄을 맡은 심재용(광주시청 육상감독·사진) 대한육상연맹 부회장은 이번 대회를 날씨와 운영·기록 면에서 모두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심 부회장은 “온화한 날씨로 인해 참가자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고 말하며 “특히, 남자 풀코스에서 2시간 30분 35초에 우승자가 들어오고 여

자부문에서도 3위까지의 입상자가 서브-3를 기록하는 등 해가 거듭할수록 수준 높은 대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모든 코스에서 무리 없이 대회가 잘 치러졌다”며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협조해준 참가자들과 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심 부회장은 전신인 광일 마라톤의 주행 코스를 부활시키며 호남마라톤의 정통을 이어가는 3·1절 마라톤의 개최정신을 높이



심 부회장은 보스턴 마라톤의 김재룡, LA 올림픽의 김원식 등이 달렸던 광일 마라톤 당시의 도심 코스를 언급하며 “대선배들이 누렸던 코스를 달려볼 수 있는 대회여서 육상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남다르다. 이 명품코스가 널리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3·1절 마라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